

끄르일로프의 우화시: 정치풍자 우화에 대한 고찰*

정 명 자**

1. 들어가며

이반 끄르일로프(Иван Крылов 1769-1844)는 러시아 우화 장르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리스의 이솝에 의해 문학적 양식으로 출발한 우화 장르는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 때 근대적 문학 양식으로 부활하였고, 이것이 18세기 중엽 러시아에 전래되어 19세기 전반기까지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장르이다. 당시 활약했던 많은 우화작가 중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차원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 꼽히는 끄르일로프는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우화 장르의 완성자로서 그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끄르일로프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날리는 풍자적 우화 작품, 그 중에서 특히 알렉산드르 1세(Александр I, 1801-1825년 재위)의 치세 상황과 관련된 풍자우화의 내적 동기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화에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우의(寓意)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우화 역시 하나의 창작이므로 일차적으로는 작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적·시대적 우의가 기탁된다. 그러나 우화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독자 혹은 청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창출될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독자 또는 청자들에 의해 수용되는 보편적·초시대적 우의이다.

창작시점상 일차적 우의 시스템에서 출발하는 우화는 근본적으로 작가의 목적성이 강하게 투영되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작자 스스로 부여한 우의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우의 양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건국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 1)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반성
- 2)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성
- 3)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과 비판¹⁾

이러한 세 유형의 우의 양상 중 본고는 2)항에 해당하는 작품, 즉 정치풍자 계열의 우화가 꼬르일로프의 경우 어떠한 역사적 배경 아래 창작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작품 소재의 이면성 분석), 아울러 그가 왜 우화 장르를 기탁하게 되었는지(장르의 수월성 문제), 그 동기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접근은 여러 편의 작품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고전적 양식으로서의 정치풍자적 우화의 현대적 변형은 어떤 스펙트럼 위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일별도 함께 행하고자 한다.

2. 러시아 우화 장르의 연원과 계몽주의자 꼬르일로프

우화(寓話, басня, fable)는 본래 민속문화의 한 갈래인 민담의 하위 장르로 분류되어야 할 영역이다. 민담은 언어로 전승되는 그다지 길지 않은 동화, 야담, 일화, 전설, 신화, 농담, 우화 등을 포괄한다. 흔히 민담은 어느 사회공동체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문화인류학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아울러 그것은 민간의 소박한 예술적 표현양식이라는 의의도 지닌다.²⁾

그 중에서 우화란 인간의 정황을 인간 이외의 동물, 신 또는 사물들 사이에 생기는 일로 꾸며서 말하는 짧은 이야기로서 대개 단순하고 전형적인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이러한 우화라는 전래의 양식을 하나의 문학적 장르로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은 그리스의 이솝(Esope, B. C. 6세기 초- B. C. 564(?))이다.³⁾ 이솝

1) 윤승준(1999) 『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 월인, 119-133쪽.

2) 이상섭(1991)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88쪽.

3) 이솝 우화의 판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 1927년 프랑스 파리에서 간행된 에밀 샹브리(Emile Chambry)가 엮은 「이솝 우화집」이 가장 신빙성 있는 판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샹브리 판본은 이솝이 살아있었다고 추정되는 기원전 6세기 전후, 그리고 작가가 분명히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이솝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우화 358편을 그리스 제목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여 편집한 것이다(이솝(1998) 『어른을 위한 이솝

에 의해 정형화된 우화형식은 그 이후 동물 등 대상의 우의화를 통해 인간사를 비판하는 풍자의 문학, 대화와 언어적 재치로 상대방을 우롱하고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의 문학, 망상을 수반한 인간적 결합을 표현하며 지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아이러니의 문학으로 정착하게 되었다.⁴⁾

그 후 근세에 이르러 화려한 우화장르의 부활이 있었으니 그것은 17세기 프랑스의 장 드 라 폰텐(Jean de La Fontaine 1621-1695)에 의해 이루어진 업적이다. 그가 속했던 시대가 당시 프랑스 고전주의 문학시대였으므로 그는 고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공을 초월하는 인간본성의 묘사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며 1668년부터 그가 타계하기 직전인 1694년까지 26년에 걸쳐 총 12권 240편의 우화를 집필했다.⁵⁾

그렇다면 우화 장르가 러시아에 도입된 것은 언제인가? 뽀뜨르 대제 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서구화 과정을 거치며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한 러시아는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프랑스 고전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화 장르는 수마로코프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⁶⁾ 그 후 우화는 송시, 애가, 희극과 더불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걸쳐 인기있는 유행장르로 자리 잡았다. 강한 리얼리즘의 성격을 띤 험니체르(И. Хемницер 1745-1784), 이즈마일로프(А. Измайлов 1779-1831), 우아한 필치를 구사하는 드미트리예프(И. Дмитриев 1760-1837) 등이 우화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⁷⁾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 최대의 우화작가 프르일로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볼 때 프르일로프는 충실한 고전주의의 추종자라고 할 수 있다.

프르일로프의 본격적인 문필활동은 저널리즘에서 출발한다. 1789년 볼테르 작품의 번역으로 유명한 И. 라흐마니노프와 함께 간행한 시사잡지 『영혼의 우체국』

우화 전집』, 신현철 옮김, 문학세계사, 5-11쪽).

4) 김재환(1999) 『寓話小説의 世界』, 박이정, 24쪽.

5) 그의 우화는 소재상으로 볼 때 온전한 창작은 아니다. 그가 스승으로 삼았던 이솝의 우화 역시 완전한 창작이라고 할 수 없듯이, 라 폰텐의 우화 역시 이솝의 작품에서 출발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이솝의 재창조 작업 외에 라 폰텐 자신의 창작도 가미되어 그는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우화작가가 되었다. 장 드 라 폰텐(2004) 『라 폰텐 그림 우화』, 박명숙 옮김, 시공사, 460쪽.

6) 연구에 의하면 수마로코프는 무려 400여 편의 우화를 썼는데 독창성 및 문학성은 그 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О. Б. Лебедева(2003)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XVIII века*, Москва, с. 140).

7) D. S. 미르스끼(1988) 『러시아 문학사I』, 이항재 옮김, 화다, 75쪽.

이 그 첫걸음이다. 노비코프(Н. Новиков 1744-1818)의 『꿀벌』(1769-70)과 『화가』(1772-73)와 같은 풍자 잡지의 전통을 계승한 이 잡지에서 크르일로프는 마법사와 정령들의 서신교환이라는 형식으로 귀족계급의 허영과 위선, 공금횡령과 뇌물 등의 사회문제를 폭로하는 일련의 글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볼테르, 루소와 같은 서구 계몽사상가 또는 칸첸미르(А. Кантемир 1708-44), 노비코프, 라지슈프(А. Радишев 1749-1802)와 같은 러시아 계몽주의의 추종자임을 표방하며, 계급적 평등을 지지하고 전제정치와 농노제도를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기저 하에 그가 휘두른 예리한 풍자의 필봉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잡지의 급진적 경향은 같은 해 여름, 창간한 지 8개월 만에 폐간되는 사태를 야기했다. 그 후 그는 배우 И. 드미트리예프, 극작가 А. 끌루신과 『관찰자』(1792), 다시 А. 끌루신과 『베제르부르크의 사자』(1793)라는 잡지를 창간하였으나 역시 당국의 탄압으로 단명하고 말았다. 예카제리나 II세의 사이비 자유주의와 전제 정치의 폭정에 대한 조소와 비판이 그 원인이 된 것이다. 그 후 크르일로프는 문단을 떠나 약 12년간 야인생활로 접어들었다.

이같은 맹렬한 비판적 저널리스트로서의 크르일로프의 배경에는 계몽주의 이데올로기가 있다. 18세기 후반 들어 러시아의 사회·정치 사상은 통일된 관제 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어나 보다 지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사회·정치사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국가 권력의 문제, 전제주의와의 관계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사회적 의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계몽사상은 국가의 봉건적 형태를 비판하는 무기가 되었으며, 전제권력을 제한하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계몽운동은 러시아에 일어난 최초의 반봉건적 이데올로기였다. 이 운동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프리메이슨(Масонство, Freemason)⁸⁾이다. 러시아에 확산된 프리메이슨은 사회사업과 종교, 교육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인간의 도덕적 자기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점진적 방법으로 교육을 통한

8) 프리메이슨은 18세기 초 런던에서 성립하여 곧 전유럽에 파급된 국제적 비밀결사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정신에서 출발한 이 단체는 국가와 계급, 인종을 초월하는 평화적 인도주의를 지향했는데, 각국의 귀족을 비롯한 각계 명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했다. 러시아 최초의 프리메이슨 지부는 1730년대 설치되어, 1822년 정부의 지부 폐쇄령까지는 공식적으로, 그 후 1830년대까지 비밀조직으로 존재했다(니콜라이 베르자예프(1980) 『러시아 사상사』, 이철 역, 범조사, 35-39쪽).

인격의 자기완성이라는 프리메이슨의 도덕철학은 프르일로프 뿐만 아니라 노비코프, 까람진(Н. Карамзин 1766-1826), 라지웨프, 폰비진(Д. Фонвизин 1744/45-92)과 같은 그의 윗세대부터 다음 세대인 제까브리스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⁹⁾

이때 출판사업이라는 실천적 방법론을 통한 계몽사상의 확산에 앞장선 사람이 노비코프이다. 그는 “민중의 계몽을 위한 모든 제도 가운데 가장 유익한 일은 필요한 서적을 출판하는 것”¹⁰⁾이라고 주장하며, 잡지와 서적을 통한 민중의 계몽을 꾀했다. 그는 무지가 인류의 모든 방황의 원인이며, 지식은 완성을 위한 원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계몽의 확산이 곧 사회를 위한 봉사라고 간주했다.¹¹⁾ 이 같은 사상에 동조한 프르일로프였기 때문에 그 역시 잡지 사업을 통한 계몽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환언하면 프르일로프는 국가권력에 반하는 여론형성이 사회변화의 초석이 된다는 믿음으로 저널리즘에 투신했던 예카제리나 시대의 계몽주의자 문화활동가 중의 한사람이었던 것이다.

3. 문학적 정황: 알렉산드르 1세와 김열

계몽군주를 자처하는 예카제리나는 미래의 황제(알렉산드르 1세)가 될 맏손자를 특별히 사랑하여, 교육문제를 직접 관장했다. 그녀는 손자 교육을 위한 지침을 루소의 『에밀』에서 찾아 몸소 실천에 옮기고자 하여,¹²⁾ 제네바 출신의 프레데릭 세자르 라아르프(Frédéric César Laharpe)를 전담교수로 위촉했다. 공화주의자였던 라아르프는 알렉산드르 1세에게 진보적인 자유주의 교육을 실시했다.¹³⁾ 라아르프의 영향으로 알렉산드르는 장차 자신이 황제가 되면 러시

9) 술긴·코쉬만·제지나(2002) 『러시아문화사』, 김정훈·남석주·민경현 옮김, 후마니타스, 157-160쪽.

10) 같은 책, 152쪽.

11) 같은 책.

12) В. В. Андреев(1871)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в России после Петра I*, СПб.(И. А. Крылов (2003) *Басни.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ое собрание басен Ивана Андреевича Крылова*, М., с. 192에서 재인용).

13) 케네비치(В. Ф. Кеневич)는 러시아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라아르프에게 미래의 러시아 황제 교육을 위임한 것 자체가 예카제리나 여제의 최대의 실책 중 하나였다는

아에 루소식의 입헌주의 정치체제를 실현하겠다는 이상을 품게 되었다.¹⁴⁾

궁정 쿠데타에 의해 제위에 오르게 된¹⁵⁾ 그는 1808년 젊고 유능한 행정관료 스페란스끼(M. Сперанский 1772-1839)를 등용해 러시아의 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809년 완성된 그의 헌법초안 「국가개조안」은 국가두마(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에 기초한 군주제 도입을 명시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1810년 국가평의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도 설치되었다.¹⁶⁾

이 프로젝트가 중도하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알렉산드르 I세 자신에게 있었다. 그의 자유주의 이념 사상에는 아직 자치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고, 또한 그는 헌법제정은 원하되 전제군주의 무제한적 통치권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딜레마에 봉착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보수적 기독교층인 귀족계급의 저항도 완강했다.

스페란스끼의 헌법안은 당시 러시아의 현실에 비추어서 가히 혁명적인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상이 채택되고 실현되어 의회제도가 도입되고, 전체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인텔리겐치아 세력과 이상주의적 세력을 의회제도 속으로 포용하여 그를 통한 단계적 개혁을 수행해 나갔다면, 제까브리스트의 난이나 그 이후 블세비끼 혁명으로까지 이어지는 혁명의 에너지와 열기는 체제 속에 흡수되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I세의 강인하지 못한 정신력은 그가 적극 지지하던 스페란스끼의 헌법안을 백지로 돌려 국가계획안 자체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¹⁷⁾

결국 러시아 민중이 기대했던 ‘개혁자’이며, ‘유럽의 해방자’인 ‘위대한 황제’ 알렉산드르 I세가 러시아를 점차 근대적인 사회로 개선시켜나갈 것이라는 믿

지적을 하고 있다(В. Ф. Кеневич(1878)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е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приложения к басням И. А. Крылова*, Петроград(И. А. Крылов(2003), с. 190에서 재인용)).

14) 김학준(1980) 『러시아 혁명사』, 문학과지성사, 6-7쪽.

15) 뻬넬 I세(1796-1801)는 전통적 귀족의 특권인 납세와 병역 및 체형의 면제를 취소하는 귀족면장(貴族免狀)의 박탈 등을 시행하여 귀족계급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귀족들은 국왕의 암살을 계획하고, 거사 전 이 음모를 황태자인 알렉산드르에게 사전 제보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죽음을 담보로 한 쿠데타에 의한 자신의 조기 즉위를 허용할 만큼 알렉산드르의 정신세계는 비정상적이고,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었다.

16) 이무열(1996) 『러시아사 100장면』, 가람기획, 156-159쪽.

17) 김학준(1980), 10-11쪽.

음은 완전한 물거품이 되었다. 1812년 나폴레옹의 침략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가 된 알렉산드르는 그 후 '유럽의 해방자'로서 국제적 명성을 날렸지만, 대내적인 치정에서는 보수주의로 일관하다 생애를 마치게 된다. 이리하여 19세기 초반 진행되었던 알렉산드르 I세의 근대화의 꿈과 시도는 실패로 끝맺음 되고, 러시아는 기나긴 보수 반동의 동면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¹⁸⁾

알렉산드르 I세 즉위 후 프르일로프는 우화 장르와 함께 문단에 복귀하였다. 1806년 잡지 『모스크바 관찰자』에 시 형식으로 된 3편의 우화 「떡갈나무와 갈대」, 「노인과 세 젊은이」, 「눈이 높은 소녀」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원래 라퐁텐의 작품을 번안한 것이었다.¹⁹⁾ 이렇게 우화를 쓰기 시작한 그는 1809년 23편의 우화를 엮어 최초의 『우화집』을 발표했다. 이 책은 대중적 인기를 끌어모으며 프르일로프에게 우화작가로서 확고부동한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이 같은 성공은 그가 그 후 오로지 우화 장르에만 전념하여 평생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총 200여 편의 우화를 쓰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 프르일로프의 우화는 1843년 총 9권의 『우화전집』으로 정리되었다.²⁰⁾

그런데 이처럼 프르일로프가 우화 장르에 천착하게 된 데에는 당시의 검열제도와 의 상관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에서는 1804년 공식적인 검열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래 19세기 내내 모든 작가들이 검열의 감시와 족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865년까지는 사전검열제, 그 이후에는 사후검열제로 바뀌었지만, 한때 '검열테러의 시대'²¹⁾라는 악명이 있을 만큼 러시아의 검열제도는 혹독하고 집요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우화는 검열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우회적인 전술이 될 수 있었다. 간접적 암시에 호소하는 도구매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르일로프가 검열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18) 이무열(1996), 159쪽.

19) 이렇게 이습-라퐁텐 작품의 번안으로 출발한 프르일로프는 곧 자신의 독자적인 작품을 창작하는 단계로 넘어갔지만, 전체 작품 중 이습-라퐁텐에 기초하는 작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 1843년 베제르부르크에서 출간된 『9권으로 된 프르일로프 우화집』은 프르일로프 자신이 직접 엮은 그의 우화집 마지막 판본으로 각 작품에는 I-I, II-I, III-I... 형식으로 분류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여기서 앞과 뒤의 로마자는 각각 권수와 작품번호를 가리킨다.

21) 특히 유럽혁명의 여파를 봉쇄하고자 했던 니콜라이 I세 치세 후반기(1848-1855년)를 가리킨다(로날드 헝글리(1989) 『러시아의 작가와 사회』, 이항재 역, 푸른산, 229쪽).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중검열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식적인 관의 검열이다.('물고기들의 춤'(1824)이라는 우화의 개작 원고에서 사자의 대화가 바뀌게 된 예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검열은 흐르일로프의 후원자인 오레닌(A. Оренин)²²⁾이다. 오레닌은 흐르일로프 우화의 이해자이며 후원자였으나 실제로는 흐르일로프의 창작활동에 대한 일종의 검열관이었다. 우화시 '피꼬리'(1825)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면 할수록 도망치지 못하게 엄중히 감시되는 피꼬리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 피꼬리는 흐르일로프 자신이며, 그 새를 감시하는 사냥꾼은 오레닌을 가리키고 있다.²³⁾ 그러나 이렇듯 그의 작품들이 사회 각 계층의 부패와 불합리를 통렬히 풍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화라는 형식을 취했기에 검열의 직접적인 축수를 피해갈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 작품의 사례 연구

여기서 흐르일로프의 정치풍자 우화의 실례를 고찰해보기로 하자. 앞에서 밝혔듯이 우화작품에는 일차적으로 작가의 개인적이며 시대적인 우의가 기탁된다. 따라서 어느 작품의 일차적인 우의에 접근하려면 당대의 사회 환경적 배경에 대한 사전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알렉산드르 I세 시대의 정치풍자 우화이므로, 먼저 황제 알렉산드르 I세를 조명해보도록 한다.

4.1. 「기사(Рыцарь)」

「기사」는 1816년 쓰여져 같은 해 『신작 우화집』에 수록된 작품으로 1843년 판본의 전집에서는 V-XI로 분류되었다.

옛날 어느 기사가 모험에 나서기로 했다. 마법사에게 대항하고, 유령을 물

22) 1812년 베제르부르그 공공도서관(현재의 살트이코프-셰드린 기념 도서관)이 개관하자, 도서관장인 오레닌은 흐르일로프를 사서로 초빙했고, 여기서 그는 30여년간 한직에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우화집필에 몰두했다: 정명자(2001) 『인물로 읽는 러시아문학』, 한길사, 38쪽.

23) I. 크뤼로프(1993) 『러시아 파라독스 세상읽기』, 방인원 엮음, 생각하는백성, 246쪽.

리치기 위한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춘 기사는 말등에 오르려다 문득 자신의 애마에게 이렇게 명을 내린다.

«Послушай, ретивой и верный конь, меня:
Ступай через поля, чрез горы, чрез дубравы,
Куда глаза твои глядят,
Как рыцарски законы нам велят,
И путь отыскивай в храм славы!

(...)

Тогда трудов твоих, мой друг, я не забуду;
С тобой всю славу разделе: ... »

(...)

Тут Рыцарь прыг в седло и бросил повода,
А лошадь молодца, не езда никуда,
Прямехонько примчала в стойло.²⁴⁾
“듣거라,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말아,
들판과 산을 넘어 참나무 숲을 지나
너의 눈길이 닿는 곳으로 달리거라.
그리고 기사도에 따라
영광의 사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라!

(...)

나의 벗이여, 너의 수고를 잊지 않오마.
나는 모든 영광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

그리고 기사가 말안장에 훌쩍 뛰어올라 말고삐를 내리치자
말은 현명하게 그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고
곧바로 마구간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우화를 통해 프르일로프는 무능한 알렉산드르 I세와 그의 충신들을 풍자하고 있다. 기사는 알렉산드르 I세를 가리킨다.²⁵⁾ 이 기사는 원대한 모험을 꿈꾸며 호기롭게 출정을 선포하지만 정작 본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며 출정의 명분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목적의식조차 없다. “너의 눈길이 닿는 곳으로 달리거라.” 는 명을 내림으로써 모든 지휘와 결정권을 말에게 위임하는 ‘한심성’을 노정한다.

24) И. А. Крылов(2003), с. 316.

25) И. А. Крылов(2003), с. 207.

말은 여기서 알렉산드르 I세의 총신들이다. 말이란 전쟁에 임하는 지휘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 존재이다. 그런데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북풍 보아레스의 현신으로 나타난다. 보아레스는 말(혹은 노인)의 모습을 하는데 파괴와 풍요라는 양면적 속성을 갖는다. 그 중에서 은화의 전형인 서풍 제피로스(꽃과 사랑의 여신 플로라의 연인)와 대비적 위치에서 흔히 난폭의 전형으로 일컫어지는 것이 보아레스이다. 이처럼 말은 거칠고 난폭한 속성이 있는 가하면, 노인이라는 또 다른 현신에서 유추되듯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동물이라고 여겨졌다. (서양 문화권에서 말의 편자를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풍습은 말이 천리안을 가졌다고 보는 민간신앙에서 유래한 것이다.)²⁶⁾ 이렇듯 ‘파괴적이며 영리한’ 말은 독자적 판단에 의해 기사의 명을 거역하고 모험의 길 대신, 자신의 본향인 마구간을 사수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이 우화의 슈제프를 구성한다.

조국전쟁과 비인회의 후 알렉산드르 I세는 국제정치에 몰두한 나머지 국내정치는 아락체예프(A. A. Аракчеев 1769-1834)에게 위임하여 대리 치세를 하는 상황에 들어갔다. 이 작품이 씌어진 1816년경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아락체예프는 일체의 자유주의자들을 배제하고 극도로 보수적인 반동정치로 일관하여 의식 있는 민중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이같은 국내 정치상황을 두고 프르일로프는 소극(фарс)적 구성을 통해 알렉산드르 I세는 기사 돈키호테형의 군주로, 그의 총신들은 어리석은 주인을 능멸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말로 우의화하여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4.2. 「독수리와 거미(Орел и паук)」

「독수리와 거미」는 1811년 11월 이전에 씌어져 1812년 『러시아어 애호협회 독본』 5호에 처음 발표되었다가 1815년 『우화집』 5권에 수록된 작품이다 (1843년 판본의 전집에서는 III-XVIII).

여기서 독수리와 거미는 알렉산드르 I세와 당시 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던 스페란스끼를 각기 우의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독수리는 인간세계의 최고 권력자를 비유할 때 흔히 쓰여지는 상징물이다

26) 『한국문화상징사전』(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동아출판사, 262쪽.

27) И. А. Крылов(2003), с. 207.

(러시아 제국의 쌍두의 독수리 문장을 환기해 볼 것). 그에 반해 거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학명이 아라크니다(Arachnida)인 거미는 그 이름이 아라크네에서 유래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길쌈 솜씨가 빼어난 아라크네는 직물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능가한다는 자만심에 차 있었다. 결국 둘은 길쌈솜씨를 겨루게 되고, 결과는 아라크네의 솜씨가 아테나에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화가 난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직물을 찢어버리고 그녀를 거미로 만들어 버렸다. 이처럼 자만심을 못 이겨 신에게 도전한 아라크네가 다다른 파멸의 종착점이 거미이다.

한편 서양 문화권에서 거미는 그물을 쳐서 먹이를 잡아먹기 때문에 음모를 꾸미는 악인에 비유되거나, 새끼들이 어미를 잡아먹는다하여 패륜아를 상징한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악마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빠는 수전노로 해석되기도 한다.²⁸⁾ 프르일로프는 이처럼 부정적 이미지의 거미를 통해 스페란스끼를 풍자하고 있다.

스페란스끼는 본래 지방 사제의 아들로 신학교 출신이었으나 알렉산드르 I 세에게 발탁된 이후 최고의 총신자리에 오르며 백작의 지위에 봉해진 인물이다. 그의 권력은 1810년 설치된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맡으며 정점에 달하였다. 프르일로프는 스페란스끼를 직설적으로 “거미 같은 인간(на этихих пауков)”²⁹⁾이라 지칭한다. 이런 사람은 생각이나 노력도 없이 최고 권력자의 옷자락에 매달려 높은 자리에 도달해서는, 마치 신이 그들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준 것인 양 우쭐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프르일로프는 이 같은 인물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한다.

Хоть стоит ветру лишь пахнуть,
Чтоб их унести и с паутиной.³⁰⁾
바람이 불기만 해도
거미집과 함께 날아가 버릴 텐데 말입니다.

실제로 스페란스끼는 그 후 1812년 권좌에서 축출된다.³¹⁾ 황제의 의지박약

28) 『한국문화상징사전 2』(1995),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동아출판사, 30쪽.

29) И. А. Крылов(2003), с. 207.

30) 같은 책, с. 207.

31) 그는 1812년 3월 유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스페란스끼는 오랜 공백기를 거쳐 니콜라

과 저항세력에 부딪쳐 국가 개혁 사업 자체가 중단되게 된 것이다. 결국 「독수리와 거미」는 풍부한 대화체를 동반한 극적 구성을 통해 권세가의 유한성에 대한 예언적 패러독스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4.3. 「사중주(Квартет)」

1810년 1월과 1811년 3월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1811년 『신작 우화집(Новые басни)』에 처음 발표되었고, 그 후 1843년의 『우화 전집』에서 IV-I로 편성되었다.

「사중주」는 네 사람의 정치가와 그들의 행태를 겨냥하여 쓰여진 풍자 작품이다. 이 네 사람의 인물은 각기 원숭이, 당나귀, 염소, 곰으로 우의화되는데, 그들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1)장난꾸러기 원숭이 - Н. С. Мордвинов; 2)당나귀 - П. В. Завадовский; 3)염소 - П. В. Лопухин; 4)안짱다리 곰 - А. А. Аракчеев.³²⁾

이들 네 사람은 모두 국가평의회 위원들로 당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총신들이었다. 국가평의회는 스페란스키의 국가개조안에 따라 1810년에 설치된 것으로, 고위관리와 장교들 중에서 황제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황제의 입법권 행사에 자문을 행하는 기관이었다. 당시 이 국가평의회 위원들은 스페란스키와 더불어 황제의 절대적 신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경험이 일천하고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여 그들이 실현한 정치적 성과물은 전무했다. 프리일로프는 당시 이들의 미숙한 행태를 자리다툼에 골몰하는 어설플 악단의 알레고리로 꼬집는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네 동물의 표상성은 다음과 같다:

1)원숭이: 이솝 우화의 「원숭이와 돌고래」에서 돌고래는 조난당한 원숭이를 사람인 줄 알고 등에 업고 해안까지 헤엄쳐간다. 피래우스 항구 가까이 가자, 돌고래가 원숭이에게 피래우스를 아느냐고 물었다. 피래우스가 사람이라고 생각한 원숭이는 잘 알 뿐더러, 그는 자신의 친한 친구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에

이 I세 때 화려한 부활을 한다. 이때 그는 이전의 자유주의 성향을 완전히 배척하고, 열성적인 전체체제 지지자로 전향하게 된다. “제1조 전 러시아의 짜르는 독재하는 절대군주이며, 그 최고 권력에 외경심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복종할 것을 신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로 시작하는 『러시아제국 법전』(1833)의 편찬을 비롯해 전 45권짜리 『러시아 제국 법률 집성』(1830)이 그의 역작이다(이무열(1996), 169-173쪽).

32) И. А. Крылов(2003), с. 216.

화가 난 돌고래는 물 속으로 잠수해버렸고, 원숭이는 물에 빠져 죽었다.³³⁾ 이 우화처럼 원숭이는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의 이미지를 갖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 원숭이가 장난꾸러기 원숭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영웅 신화의 진화단계를 연구한 폴 라딘에 따르면 “장난꾸러기 주기(Trickster cycle)”는 인생초기의 발달기간에 해당한다. 장난꾸러기는 유아의 정신상태에서 신체적 욕구가 행동을 지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잔인하고, 냉소적이며 냉혹한 특질이 있다.³⁴⁾ 이로써 장난꾸러기 원숭이에는 못된 거짓말쟁이라는 이중적 부정의 이미지가 구현되고 있다.

2)당나귀: 미다스(Midas) 왕은 아폴로와 목신(牧神) 판(Pan)의 음악시합에서 판의 편을 들었다. 이에 노한 아폴로가 잘못 판단한 미다스의 귀를 잡아늘여 당나귀 귀로 만들었다는 그리스 신화 이후 당나귀는 서양문화권에서 우둔, 무지, 어리석음, 완고, 게으름, 무능력 등 부정적 이미지의 대표적 아이콘이 되었다.

3)염소: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양과 염소의 유명한 비유가 등장한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다”. 여기서 염소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46절)에 들어가야 할 “저주를 받은 사람들”(41절)을 지칭한다. 이 비유에 유래하여 염소는 전통적으로 악인을 상징하는 이미지의 동물이다.

4)곰: 곰의 신비로운 숨소리는 동굴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곰이 어둠의 상징이다.³⁵⁾ 또한, 이솝우화의 「곰과 여우」에 나타나듯, 곰은 탐욕스러운 위선자를 상징한다. 안짱다리 곰은 이러한 곰의 표상성에 신체의 기형성을 부가함으로써 존재 자체의 내적/외적 그로테스크를 심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어리석고 악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동물 사중주단의 연주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예술로 세상을 사로잡으려 했지만 박자도 맞지 않고 합주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리가 잘못되어 그런 줄 알고 다시 자리를 배치하느라 소동을 부린다. 그때 피꼬리 한 마리가 그 아수라장 속으로 날아들어 점잖게 훈계한다.

«Чтоб музыкантом быть, так надобно уметь
И уши ваших понежней, -

33) 이솝(1998), 342쪽.

34) 칼 G. 융(1995) 『사람과 상징』, 정영복 옮김, 까치, 126쪽.

35) 『한국문화상징사전』(1992), 65쪽.

Им отвечает Соловей, -
 А вы, друзья, как ни садитесь,
 Все в музыканты не годитесь.»³⁶⁾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숨씨도 있어야 되고
 심세한 귀도 필요하지.
 그런데 친구들, 어떻게 앉느냐 하는 것은
 음악가에게 전혀 중요치 않은 일이다.”
 이것이 꺄꼬리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꺄르일로프는 직설적인 교훈을 병렬한 극적 구성법을 통해 무능하고 사악한 위정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정치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아락체예프는 조국전쟁 이후 보수 반동화한 알렉산드르 I세 치세 후 반기에 이르러 더욱 공고한 권력을 장악하여 행정부를 전횡한 자로 유명하다. 결국 제까브리스트의 난이 발발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는 아락체예프 같은 총신의 발호, 포찌(Фотий) 승원관장 같은 극단적 보수 세력의 횡포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4.4. 「산양(Дикие козы)」

1820-1823년 사이 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산양」은 1825년의 『우화집』에 처녀 발표되었고, 1843년의 『우화 전집』에서는 VII-XIV가 되었다.³⁷⁾

이것은 1815년 알렉산드르 I세가 폴란드 왕국에 내린 헌법제정 유히를 모티프로 씌어진 작품이라는 꺄네비치의 설이 정설로 되어 있다. 꺄네비치에 의하면 이 우화의 수신자로 유추되는 알렉산드르 I세는 이 작품을 보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짐은 이 노인에게서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며 작품의 초고 발표를 금지시켰다는 것이다.³⁸⁾ 그리하여 「산양」에 등장하는 목동은 일찍부터 알렉산드르 I세의 직접적인 변용이라는 설이 지배적으로 정착되었다.

36) И. А. Крылов(2003), с. 216.

37) 본래 이 작품의 모델은 이슈의 「목동과 양」이다. 꺄르일로프 역시 최초의 원고(первый вариант)에서는 「목동(Пастух)」라는 제목을 채택하였다(А. В. Десницкий “Басня И. А. Крылова «Дикие козы» в связи с традициями русской сатиры XVIII в.,” с. 328.)

38) 같은 책.

그러면 프르일로프는 이 작품에서 무엇을 밝히고자 했는가?

프르일로프는 기본적으로 일반 민중을 ‘양무리’로 보았다. ‘양’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25장 32절의 비유에서 ‘염소’의 대칭적 위치에 서는 동물이다. 이 알레고리에서 양은 목자의 오른쪽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의로운 사람’(46절)으로 지칭된다. 즉, 염소가 악인인데 반해, 양은 선인이며 목동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다. 단지 여기서 산양은 폴란드인이며, 집양(домашние козы)은 러시아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먹이(корм)는 헌법 혹은 보다 진보적인 제도를 상징한다.

겨울에 동굴에서 산양의 무리를 발견한 목동은 매우 기뻐하며 전심전력으로 그들을 보살핀다. 그는 집에서 키우는 양들의 먹이를 가져다 산양에게 주고, 하루에도 백번씩 다녀가는 등 온갖 정성을 쏟는다. 그러나 봄이 오자 산양은 야생의 속성에 따라 산으로 돌아가고, 큰 이익을 고대했던 목동은 절망하고 만다. 더욱이 목동이 방치했던 그의 양들은 거의 폐사하기 직전에 이르러 불행이 겹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알렉산드르 I세는 치세 초기에 자유주의적 개혁군주를 지향했지만, 치세 후반기는 보수적 반동주의로 일관하였다. 이같은 경향은 1812년의 전쟁과 그 이후의 일련의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다.

1814년 비엔(Wien)회의가 열리자 여기서 알렉산드르 I세는 기독교의 정의와 사랑을 내세우며 신성동맹을 제창하여 유럽의 북고반동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그 부산물로 그는 나폴레옹이 세운 바르샤바 공국을 양도받아 폴란드 왕국을 세우고 그 왕을 겸임하는 수확을 얻었다.³⁹⁾ 그와 동시에 그는 폴란드 왕국에 대한 자치적 헌법의 수용을 재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프르일로프는 바로 여기서 경각의 화살을 날린다. 러시아 황제가 우선적으로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러시아 민중이야말로 자유와 헌법, 그리고 진보적 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프르일로프는 이렇게 반문한다.⁴⁰⁾

Чем в Диких Коз терять свой корм напрасно,
Не лучше ли бы Коз домашних побережь?⁴¹⁾

39) 이무열(1996), 160-163쪽.

40) A. B. Десницкий, с. 331.

41) И. А. Крылов(2003), с. 430.

무엇 때문에 산양에게 먹이를 헛되이 낭비합니까,
집의 양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이처럼 자신의 백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사랑할 줄 모르는 군주의 모습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우화 「물고기들의 춤(Рыбья пляска)」(1825), 혹은 「얼룩양들(Пестрые овцы)」(1822)에서도 사자왕의 모습으로 거듭 반복되고 있다. 즉 이 세 작품은 모두 알렉산드르 I세의 반민중적 태도를 경각시키고자 하는 우화로 볼 수 있다.⁴²⁾

4.5. 「개의 우정(Собачья дружба)」

이 작품은 1814년에 씌어져 1815년 『우화집』에 수록 발표되었다가 『우화전집』에서 II-V로 분류되었다.

뿔간과 바르보스라는 두 마리의 개가 부엌 창문 밑에 엎드려 해바라기를 하며 대화를 즐기다 선과 악, 그리고 우정에 관한 토론까지 나누게 된다. 그들은 그동안 서로 반목하고 싸웠던 것을 뒤우치며, 장차 진정한 우정의 사표가 되자는 굳은 맹세를 하며 오레스테스와 퓨라테스⁴³⁾가 된다. 그런데 때마침 요리사가 부엌에서 뼈다귀를 던져주었다. 그러자 두 친구는 앞을 다투어 뼈를 향해 몸을 날리고, 그 순간 화합과 일치는 산산조각 나게 된다.

형태상 비극적 코미디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 작품의 주인공 뿔간과 바르보스는 개로 설정되어 있다. 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에서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이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서 충성과 용기의 상징이지만 아울러 그 이면적 의미에서, 특히 서양문화권에서 개는 타락과 파멸을 상징한다. 예컨대 성경에서 미련한 자가 미련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을 가리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구약성서 잠언 26장 11절), 혹은 “씩은 고기를 먹는 동물”(구약성서 시편 22편 23절)이라는 비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개는 부정적 의미론에서 탐욕과 탐식의 상징, 혹은 허영과 이기주의자, 기생충의 표상으로 해석되는 동물이다.⁴⁴⁾

「개의 우정」은 나폴레옹 전쟁의 종료 후 개최된 비인 회의석상에서 발생한

42) А. В. Десницкий, с. 331.

43)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의형제를 가리킨다.

44) 『한국문화상징사전』(1992), 28-29쪽.

승전국 간의 불협화음을 풍자하는 작품이다.⁴⁵⁾ 알렉산드르 I세는 조국전쟁의 승리 후 여세를 몰아 영국, 오스트리아, 프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 군의 추격전에 나섰다. 1813년 10월 '열국의 전투'라 알려진 라이프치히(Leipzig)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1814년 3월 31일에는 동맹국들과 더불어 당당하게 파리에 입성했다. 그는 곧이어 나폴레옹의 완전한 실각 후 1814년 9월부터 1815년 6월까지 비인에서 개최된 비인 회의를 주도하는 리더 역할을 맡았다.⁴⁶⁾ 여기서 유럽의 평화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새롭고 안정적인 정치 질서의 모색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신성동맹(Holy Alliance)이 탄생하였다.

결국 「개의 우정」에서 프르일로프는 두 마리 개라는 우의체계를 통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가식적 관계를 풍자하고 있다. 유럽의 평화를 위해 5대 강대국이 연합하여 국제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 신성동맹의 취치이지만, 실제로 개별 국가 간의 이해문제가 충돌할 때 이 대의명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극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성동맹은 그 이후 실행과정에서 신질대주의와 간섭주의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노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실리는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Klemens Fürst von Metternich 1773-1859)가 쟁취하게 된다.⁴⁷⁾

프르일로프는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다음과 같은 결구로 알렉산드르 I세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Свет полон дружбою такою.
 Про нынешних друзей льзя молвить, не греша,
 Что в дружбе все они едва ль не одинаки.⁴⁸⁾
 세상은 그러한 우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들도 틀림없이
 우정에 있어서 이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5) И. А. Крылов(2003), с. 95.

46) 김학준(2005) 『러시아사』, 대한교과서, 130-134쪽.

47) 볼프강 슈말레(2006) 『유럽의 재발전—신화와 정체성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 을유문화사, 277-279쪽.

48) И. А. Крылов(2003), с. 93.

5. 나가며

끄르일로프의 우화는 러시아인으로서 반드시 두 번 읽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릴 때는 아동물로서 단순하고 재미있게 읽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독자적인 해석자의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독자는 작품 속에 내재해 있는 오묘한 삶의 지혜와 철학을 길어 올리고, 작품에 따라서는 문화사적 유산을 탐색한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은 독자 혹은 청자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무한히 그 경계가 열려져 있다. 바로 이 점이 크르일로프 우화가 지니고 있는 위대한 힘과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화 장르에 존재하는 이차적 우의성, 즉 독자 또는 청자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초시대적 우의성의 개방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알렉산드르 I세 시대의 정치 풍자 우화 다섯 편을 대상으로 작가 시점의 일차적 우의성, 즉 개인적·시대적 우의성에 역점을 두어 작품의 우의성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연구대상이 된 작품의 일차적 우의성과 오늘날 일반적 독자의 객관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차적 우의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차적 우의성		2차적 우의성	
	우의의 대상	풍자의 소재	우의의 대상	풍자의 소재
「기사」	기사: 알렉산드르 I세 말: 관료들	돈키호테 타입의 황제	기사: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 말: 민중	생각없이 사는 자
「독수리와 거미」	독수리: 알렉산드르 I세 거미: 스페란스끼	총신의 교만	독수리: 고관 (혹은 권력있는 자) 거미: 권력의 편승자	그들의 교만
「사중주」	원숭이: Н. С. Мордвинов 당나귀: П. В. Завадовский 염소:	함량미달의 총신	네 동물: 직무를 맡은 자	숙련자가 요구되는 곳에 배치된 비숙련자의 부적절한 행태

	П. В. Лопухин 곰: А. А. Аракчеев			
「산양」	목동: 알렉산드르 I세 산양: 폴란드 민중 집양: 러시아 민중	폴란드 헌법제정	목동: 관리자 (혹은 책임있는 자) 야생염소: 국외자(혹은 일) 집양: 돌보아야 할 사람 (혹은 일)	잘못된 판단과 처신
「개의 우정」	두 마리의 개 뿔간과 바르보스: 비인 회의 참가국	신성동맹의 한계성	두 마리의 개: 보통 사람들	이해관계 앞에 드러나는 우정의 실체

다섯 편은 모두 동물우의담의 형식을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작품에 등장하는 우의의 대상은 민중을 상징하는 양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 이미지의 동물 캐릭터이다. 이를 통해서도 작품소재가 되는 대상에 대한 작가시점의 조망이 비판적이며 풍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구성에 있어서 끄르일로프는 ‘발단—절정—과극—교훈’이라는 전통적인 우화형식을 취하지만, 각 부분에 대한 절제되고 화려한 변주를 통해 도식적 구성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형식미를 구축하고 있다.⁴⁹⁾ 여기서 특기할 점은 풍부한 대화체(「기사」와 「산양」에서는 독백체)와 극적 구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로써 끄르일로프는 장중한 교회슬라브어부터 민중의 속어까지를 아우르는 독특한 언어구사법과 더불어 우화라는 전통적인 형식을 신선하고 매력적인 형태로 개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의 우화는 문제의 소재 혹은 대상을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시각에서 제기하며, 부정적이거나 좌절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현실적 개선을 촉구할 뿐,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끄르일로프의 정치풍자 우화의 한계점이다. 그것은 우화라는 문학 장르의 한계이자 시대적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화시인이었기에 통렬한 현실비판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끄르일로프는 검열과 사법적 제재(시베리아 유형형을 당한 노비코프, 라지쉴프의 경우나 이와는 다른 뿌쉬킨, 레르몬토프의 경우를 기억할 때)

49) A. Stender-Petersen(1978) *Geschichte der Russischen Literatur*, München, s. 79.

와 같은 현실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춘철살인의 우화를 통해 시대정신을 일깨우며 위정자와 민중을 계몽하려 했다는 점에서 흐르일로프는 진정한 계몽주의자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다섯 편의 우화는 흐르일로프의 강자들에 대한 비판의식, 약자들에 대한 연민을 건전한 상식의 선상에서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의 우화는 시대를 통찰하며 민중의 개혁의지를 대변하는 요소가 있다.

한편 흐르일로프 시대 때 우화가 담당했던, 특히 시사 및 정치풍자 우화의 역할을 오늘날에는 캐리커처가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두 개의 이형(異形)적 장르인 언어예술과 시각예술이라는 매우 상이한 외형을 취하지만, 그 본질적 속성과 기능에 있어서는 많은 교집합을 갖는다. 19세기 초 러시아에서 흐르일로프가 우화시를 통한 풍자작업을 하고 있던 동시대, 영국과 특히 프랑스에서 신랄한 풍자 캐리커처가 발달하고 있었다는 점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⁵⁰⁾ 이에 대한 학문적 검토는 또 다른 연구의 대상으로 열려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흐르일로프의 우화시는 러시아 우화 장르⁵¹⁾의 빛나는 성과물로서 오늘날까지도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다차원적 이해와 감상, 탐구의 오브제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50) 박창석(2003) 『캐리커처의 역사』, 살림, 55-81쪽.

51) 우화는 고전주의적 문학양식이지만 러시아의 경우 19세기의 살띠이코프-셰드린(М. Салтыков-Щедрин 1826-89)을 거쳐 20세기 전반기의 베드느이(Д. Бедный 1883-1945), 미할코프(С. Михалков 1913-)에 의해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С. А. Фомичев(1996) *Последний русский баснописец, Из материалов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И. А. Крылову(1-2 ноября 1994 года), XVIII век, Сборник 20*,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аука, с. 273; Н. В. Сечин(ред.)(2003) *Русская басня XVIII—XX веков*, М.).

참고문헌

1차자료

- Крылов, И. А.(2003) *Басни.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ое собрание басен Ивана Андреевича Крылова*, М.
- 프르일로프, 이반(2006) 『프르일로프 우화집』, 정막래 옮김, 문학과지성사.
- 크르일로프(2004) 『이반 크르일로프 우화시』, 이재혁 옮김,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크뤼로프, I.(1993) 『러시아 파라독스 세상읽기』, 방인원 엮음, 생각하는백성.

2차자료

- 김경목(2004) 『이야기 러시아사』, 청아출판사.
- 김재환(1999) 『寓話小説의 世界』, 박이정.
- 김학준(1980) 『러시아 혁명사』, 문학과지성사.
- _____ (2005) 『러시아사』, 대한교과서.
- 라 폰텐, 장 드(2004) 『라 폰텐 그림 우화』, 박명숙 옮김, 시공사.
- 미르스끼, D. S.(1988) 『러시아 문학사I』, 이항재 옮김, 화다
- 박창석(2003) 『캐리커처의 역사』, 살림출판사.
- 베르자예프, 니콜라이(1980) 『러시아 사상사』, 이철 역, 범조사.
- 불핀치, 토머스(1995) 『그리스·로마 신화』, 최혁순 옮김, 범우사.
- 슈말레, 볼프강(2006) 『유럽의 재발견—신화와 정체성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 박용희 옮김, 을유문화사.
- 솔긴·꼬쉬만·제지나(2002) 『러시아문화사』, 김정훈·남석주·민경현 옮김, 후마니타스.
- 윤승준(1999) 『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説』, 월인.
- 윤, 칼 G.(1995) 『사람과 상징』, 정영목 옮김, 까치.
- 이무열(1996) 『한 권으로 보는 러시아사 100 장면』, 가람기획.
- 이상섭(1991)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 이솝(1998) 『어른을 위한 이솝 우화 전집』, 신현철 옮김, 문학세계사.
- 정명자(2001) 『인물로 읽는 러시아문학』, 한길사.
- 『한국문화상징사전』(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동아출판사.
- 『한국문화상징사전 2』(1995)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동아출판사.

- 헝글리, 로날드(1989) 『러시아의 작가와 사회』, 이항재 역, 푸른산.
- 빈دت, Л.(1926) *Басня сумароковской школы. Временник поэтика*, Ленинград.
- Десницкий, А. В.(1966) *Крылов и Хемницер, Роль и значение литературы XVIII века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 _____ "Басня И. А. Крылова «Дикие козы» в связи с традициям и русской сатиры XVIII в."
- Замкова, В. В.(1981) *Опыт лингвостилист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одного басенного сюжета, Язык русских писателей XVIII века*, Ленинград.
- Лебедева, О. Б.(2003)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XVIII века*, Москва.
- Макогоненко, Г. П.(Сост.)(1970)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XVIII века*, Ленинград.
- Сечин, Н. В.(ред.)(2003) *Русская басня XVIII—XX веков*, Москва.
- Стенник, Ю. В.(1985) *Русская сатира XVIII века*, Ленинград.
- Фомичев, С. А.(1996) "Последний русский баснописец, Из материалов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И. А. Крылову(1—2 ноября 1994 года)," *XVIII век, Сборник 20*,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Stender-Petersen, Adolf(1978) *Geschichte der Russischen Literatur*, München.

Abstract

**On Krylov's Fable:
A Study on Fable of Political Satire**

Jung, Myong-Ja

I. Krylov is a representative fable writer in Russia. The fabliau of Krylov is the distinguished outcome in the history of Russian fable and keeps its vitality up to now as the object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to understand, appreciate and exploit in various aspects.

This study attempted to approach the internal motives of satirical fable related to the circumstances under the reign of Aleksandr I(1801-1825), among a number of works of Krylov.

The fable has generally two implication systems: the primary implication is personal/temporal by the needs of writers, and the secondary implication is general/timeless generated from the process that the reader or the audience accepts.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background under which Krylov's fable of political satire was created on the basis of the primary implication system(analysis on the inside of writing materials) and why he selected the fable genre(easiness of genre). The examination approach was the practical analysis on five works.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7. 3. 5
논문심사일:	2007. 3. 17 ~ 2007. 4. 10
심사완료일:	2007. 4. 20

정 명 자 : 끄르일로프의 우화시 -정치풍자 우화에 대한 고찰

주제어 끄르일로프, 정치풍자 우화, 개인적시대적 우의, 보편적초시대적 우의

Jung, Myong-Ja : On Krylov's Fable – A Study on Fable of Political Satire

Key Words Krylov, fable of political satire, personal/temporal
implication, general/timeless implication